

에스엠비티(주) 대전공장



농업인과 함께 ‘선진농업의 동반자’ 될 것

연륜 만큼이나 시대변화의 편린들 많고, 글로벌 개념 곳곳 배어
‘제품 · 회사’ 인지도 불리 속 고군분투, 전사적 BT산업 지향 희망

후 자는 최근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간다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며 한국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3P전략 처방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3P란 다시 말해 ‘Product, Process, People’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짧지 않은 기간동안의 많은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농업인의 책임부분인데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도통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들어 정밀화학제품인 농약의 선진 제조 과정 및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농약 및 제조환경,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선입견을 해소코자 마련한 아홉 번째의 장(場). 영·호남은 물론 수도권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원료반입과 제품운송, 인력수급 등이 용이한 곳, 농업인과 함께 선진농업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에스엠비티(주) 대전공장(공장장 李鐘宇)을 찾았다.

40여 임직원, 정중동 노력 빛나

“농약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6~70년대의 식량 자급화에 매진하던 때와는 달리 주곡인 쌀 소비가 현저히 줄고 있지만 식량 자급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아닙니까?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약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또 농약은 친환경농자재로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李공장장은 농약산업이 근거 없이 단순히 분위기에 밀리는 현재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에스엠비티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연구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시장에 안정적인 제품공급은 물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에스엠비티 대전공장은 범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 및 회사명에 대한 다소 낮은 인지도와는 다르게, 질곡의 세월과 함께 수많은 변화의

편린(片鱗)들로 가득하다. 1978년 전진산업 제품공장으로 설립된 이후 롱프랑, 아벤티스, 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과의 많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난 2004년 에스엠비티로 거듭남으로써 제법 탄탄한 하드웨어를 지니고 있는데다 환경, 보건, 안전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내 클린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등 일일신(日日新 又日新) 하고 있다. 그래서 4500여평의 부지에다 2500평의 건평, 지베레린 도포제 등 70여 품목을 안고 있는 40여 임직원은 '경험과 상호간의 정'이란 자산을 바탕으로 정중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으나, 직원들을 단순 노동자가 아닌 생각하는 기술인으로 양성하여 생산부터 포장, 판매까지의 공정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참사랑 농업기술인으로 포진되어 있다"며 속내를 드러낸다.

李公장은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지베레린 도포제는 수입완제품이었으나 품질향상 및 자체 기술력 축적을 위해 우리기술, 우리시설로 생산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야심작이라 할 수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 '빨간풀 액제'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어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대를 표하고는 제조 종사자들



올해 목표한 생산은 100% 달성하였고 경제적·효율적 생산성 증대를 위해 액제 및 유탁제 시설의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李公장은 "Bio Technology를 모토로 하여 급변하는 국내 농업에 부응, 국내 최초의 지베레린 도포제 제조 시설을 갖추어 과수농가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키 위하여 품질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지베레린·빨간풀’ 등 미래 예약


기술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기도 한 李公장은 그러면서 "신생기업으로 수상경력은 많지 않

위한 환경 및 안전시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보다 쾌적한 환경속 근무를 위해 작업환경을 주기적으로 측정, 작업자의 노출 강도를 작업별·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순환·진화 매치를 한다. 또 분진 발생이 예상되는 분·수화제 제조시설의 바닥을 에폭시코팅처리를 통해 분진발생을 최소화 하였고 화재, 폭발, 중독, 화상 등의 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어 유사시 빠르고 정확히 위험에 대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물의 안전 사용을 위하여 공정안전관

리(PSM) 제도를 시행하여 화재·폭발 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해·위험 작업 시에 개인보호구의 철저한 사용과 근로자들의 수준 높은 안전의식으로 작업현장에서의 여하한 경미한 안전사고도 용납하지 않고 있단다.

생산현장 책임자로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李公장장은 “경험 많은 직원들이 라인에 속속 배치돼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품질관리부 전충호 차장은 이에 대해 “35년의 공장업무 이력을 지닌 공장장님의 연륜이 무난한 생산활동을 가능케 한다”며 지원에 나선다.

끝으로 도심지 소비자에게 李公장장은 “무분별한 유기농·친환경농업 분위기 확산에 따라 농약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친환경 농자재로서의 농약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가능케 해 분명 우리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하고 “우리 에스엠비티 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 모두는 선진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불철주야 연구와 생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며 올바른 인식을 당부했다. 

미니 인터뷰

李鐘宇 공장장

■ **업계의 후발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어려운 점과 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물론 특별한 혜택을 안고 출발한 것도 아니어서 후발주자로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제품의 지명도와 회사의 인지도에서 차이는 매출기여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시설면에서는 전 회사들의 글로벌 기준에 근접한 시스템으로 개선되어 있어 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후발주자로서의 큰 어려움은 잘 극복해 가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농민 홍보와 함께 고품질 제품 생산 및 적기공급 등으로 농업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생각입니다.



■ **무분별하리만큼 친환경농업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농약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나아갈 방향은?**

농약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견해가 적지 않아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6~70년대의 식량 자급화에 매진하던 때와는 달리 주곡인 쌀 소비가 현저히 줄고 있지만 식량 자급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아닙니까? 주곡인 쌀만 겨우 유지할 정도이고 기타는 작물의 자급률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농약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친환경 농업=무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디만, 이 같은 등식은 옳지 않습니다. 식량 자급화를 위해서는 농약은 물론 필요한 농자재를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이 곧 친환경농업이며 사람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 **올해 주요 계획 및 실적은?**

물론 현재는 내년도 분량의 생산을 위한 시설 점검 등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 생산측면에서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 냈습디만, 판매부문에서는 전체업계의 부진과 부적합한 일기 등이 겹쳐 썩 좋은 상태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이 다소 불리하지만 최선을 다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